# 성공 즐기기의 두 가지 습관

## (행16:1~5)

1.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2.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 받는 자니
3.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앎이러라
4. 여러 성으로 다녀 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5.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성공 즐기기의 두 가지 습관>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성공 즐기기의 두 가지 습관.
이걸 조금 더 마음에 와 닿게 제목을 좀 바꾸어보면, '성공을 즐기는 사람들의 두 가지 습관' 이렇게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상되는 책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자주 언급한 유명한 책이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그런데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공을 즐기는 사람들의 두 가지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
'마음에 뜻하는 바, 목적한 바를 이룬 것'이 성공이라고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적인 의미만으로는 실제 성공과는 거리가 좀 있어요.
뜻하는 바를 이루고 목적한 바를 이루었어도, 거기에 기쁨이 따라오지 않고 또 그 기쁨이 지속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헛된 꿈을 이룬 것입니다.
기쁨이 지속될 수 없는 성공은 언제나 다른 성공을 또 찾아가게 만듭니다.

다른 성공을 찾아가게 만드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따라서 참 성공이라면, 그 기쁨이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공의 정의를 이렇게 바꿔봅니다.
'목적하는 바를 이룸' 이게 사전적인 정의인데,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서 지속적으로 보람을 느끼고 기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 우리가 분명한 깨달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 중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성공을 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됨과 동시에 성공은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성공입니다, 더 이상의 성공은 없습니다.
성공이라는 게 뭐지요? 구체적으로 한 번 살펴보면 뭐에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성공이 뭡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입니다.
학자에게 뭐가 성공입니까? 많은 학문적 업적을 쌓아서, 많은 제자들이 그 교수님을 그 학자를 추종하고, 하나의 스쿨을 이루고… 뭐 이런 것이 성공입니다.
연예인에게 성공이 뭡니까? 인기를 얻는 게 성공입니다.
인기를 얻고, 또 그에 따라서 많은 돈을 또 어떻고, 운동선수의 성공? 다 압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성공?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돈을 얻는 게 아니에요, 명예를 얻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자식을 얻는 게 아닙니다.
경기에서의 승리를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공이에요.
왜 성공입니까? 천국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내 마음에 첫 번째 현실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과제는, 어떻게 이 성공을 즐기느냐는 것이에요.
성공을 해 놓고도 성공을 즐길 수 없다 그러면, 이건 낭패입니다.
그 성공이 무효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회 외적인 이교도들의 삶의 가장 전형적인 생각입니다.
성공 하려고 하는 것이 이교도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 생각을 받아들여 가지고, 성공하자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복잡한 교리의 미묘한 차이에서 이단을 찾으려 하지 말고, 가장 두드러지고 아주 확연하고, 분명한 이단은 누구냐 하면,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이 땅 위에서 더 이루어야 될 성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성공하자고 얘기하고, 성공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자고 하고, 성공을 위해 노력하자고 하는, 그 사람이 이단입니다.
목사님이 만일 강단에서 이 세상의 성공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이단의 괴수입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천국이 제1 현실입니다.
제1 현실로 주어지는 것이, 십자가 복음 사건을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에 계신 하나님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이 복음의 현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현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느 기업의 사장이 되는 것, 내가 인기 연예인이 되는 것, 내가 최고의 운동선수가 되는 것, 내가 최고의 엄마가 되는 것, 그거 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성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 되고 천국을 제1 현실로 갖게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됨을 무효화 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뭐가 이단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성공이 필요한 것이 이단입니다.
천국이 나의 제1 현실로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도, 다른 성공을 꿈꾸는 것이,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그게 바로 이단 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 이제 우리의 과제는 뭐냐 하면, 주어진 성공, 공

짜로 주어진 거예요, 주님을 믿었더니 성공이 주어진 겁니다, 죄 사함 받고 천국이 나의 것이 돼버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는데, 그 아버지와 그 천국이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앞선 현실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공짜로 주어진 성공이에요.
그럼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성공을 체감하는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성공을 즐기고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게.
그렇게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공을 즐길 수 있는 두 가지 습관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습관이 기도이고, 두 번째 습관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다 이겁니다.

첫 번째 습관이 기도라는 것은, 복음의 기도를 뜻합니다.
십자가복음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부활해서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서, 오직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 드려지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성공을 확인합니다.
천국이 내 것이 된 이 성공,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이 성공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에요, 이게 첫 번째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세상에 나갈 때, 사업가는 이제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 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자로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식들을 성공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어머니로서 자식을 키우는 겁니다.
목회하는 목사님은 성공적인 목회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겁니다.
목회를 성공적으로 한다는 말은 이단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업가가 사업을 하고, 성공한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고, 성공한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사업장과 자식을 키우는 현장과 목회 현장은, 바로 내게 주어진 성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의 현장에서, 이미 얻은 내 성공이 누려지고 확인되고 즐겨지지 않는 한, 복음으로 인한 성공은 소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첫 번째 습관이 기도에요.
기도는 주어진 성공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매일같이 기도함으로써 내게 주어진 성공을 확인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자로서, 나가서 사업하고, 장사하고, 자식 키우고, 목회하고 할 때에, 꼭 지켜야 될 두 번째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습관을 지킬 때, 이 성공에 참여할 수 있고, 성공으로 인한 기쁨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습관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얘기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1차 전도여행 때 맨 마지막에 했던 선교지에 2차 여행 때에는 제일 처음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더베나 루스드라나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 부근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2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여기서 루스드라에 있던 디모데를 발탁을 합니다.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디모데전서나 후서에 보면 바울의 이 전도여행과 연관된 사건에 대한 언급들이 나옵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 하면, '네가 루스드라에서 내가 얼마나 고난을 받았던 것을 알고, 주께서 나를 어떻게 건지신지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를 만났을 때 이제 20살이 되었습니다, 약관이 나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해요.

전도사역에 같이 동참하도록 데리고 가기 위해 여기서 할례를 줍니다.
이게 좀 의아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바로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온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세 율법이 정한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강조하는 것에 맞서 싸운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왜 새삼스럽게 디모데에게 지금 할례를 주려고 하고 있는 걸까요?
완전히 입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입장이 달라졌냐 하면, 할례가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주장할 때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줄 때는, 디모데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이고, 구원을 받은 자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그럴 때는, 디모데의 입장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입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전제를 디모데에게 적용 시키면서 할례를 준 겁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자면, 디모데가 유대인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으로 인정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대인이 될 수 있는데 인정 못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할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주는 겁니다.
왜 이 할례를 줍니까? 어디를 가든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고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이 없으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그래서 그 곳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회를 획득하려면,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는 겁니다.
이런 할례를 준 이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 장 19 절부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전제를 해놓고 구체적인 예를 드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 다음에는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으로 자유하지만, 율법이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이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함이고,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지 않지만, 약한 자처럼 되는 것이, 약한 자를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복음에 참여 하기 위함이다'
복음의 참여 한다는 게 뭐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참여 한다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주는 그 성공의 기쁨과 맛을 계속해서 누리려고 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새삼스럽게 이제부터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받아들인 복음을 즐기고 맛 봐요.
복음이 주는 축복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누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누려지는 겁니까?

내가 마음에 받아들인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즘 강연이 유행이잖아요, 강연이.
그래서 완전히 일류급 강사들이 있어요. 슈퍼 급에 해당되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는데, 다 성공에 대한 가르침예요, 성공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적든 크든, 자기 자신은 아주 절실하게 인생에서 성공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 강연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강연하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자기가 이룬 성공과 같은 길을 가기 위해서 거기에 가담하게 될 때, 자기의 성공으로 인한 기쁨이 배가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은, 내게 성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할 것은 강연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성공한 것을 전하느냐 하는 것이 과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것은 디모데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 하면, 디모데를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한 동역자로 삼기 위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의 사고는, 언제나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에게 내가 무얼 얻을까, 그 사람이 어떡하면 나를 인정 해줄까,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해서 좀 도움을 받을까, 이렇게 방식으로 방향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즉, 그 사람으로부터 내 쪽으로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이미 나는 성공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성공의 내용이 그에게 전달이 될 수 있을까라는 방향을 습관적으로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에 나갈 때에도 그리스도인 사업가는, 첫 번째 습관으로 십자가복음을 붙잡고 십자가복음 때문에 주어진 천국과 하나님 아버지를 제1 현실로 느낄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확인 합니다, 거기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주어집니다.

이제 그 기쁨과 평강을 안고 사업장에 나가서 할 때, 돈을 많이 벌려는 생각으로 사업장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이라고 하는 걸 계기로 만나는 사람 사람마다에게, 어떻게 이미 사업의 성공이 아닌, 사업 이전에 성공한 나의 성공을, 그들에게 전달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의 방향을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아들을 훌륭한 아들로 키울 것인가, 그래서 성공적인 양육을 할 것인가를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내 성공을 확인합니다.
나는 이미 성공을 했어요.
아들 잘 키우고 딸을 잘 키워야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성공했어요, 성공 한 사람으로서 자식을 만날 때, 어떻게 내가 이룬 이 성공이 이들에게 갈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 마음의 방향을 정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차이를?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서 문제를 당할 때는, 그 문제는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 극복해야 될 장애가 아니라, 나는 이미 성공을 한 사람으로서 이 성공은 망가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성공은, 천국이 나의 제1 현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아버지가 제1 현실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내 성공이 망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주어질 때는, 성공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장애가 아니라, 이미 성공한 사람으로서 문제 때문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 성공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인가라고 하는 식으로, 마음의 방향을 습관적으로 정한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습관, 무조건 '어떻게 사람들에게 내 마음 속에 있는 성공, 복음을 통해 주어진 성공이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만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향해 가는 것, 이 두 번째 습관이 있을 때, 복음에 의해서 주어진 성공이 끊임없이 즐길 수 있게 되고, 기쁨의 근원이 되면서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언제나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떻게 내가 이미 얻은 복음으로 인한 성공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을 것인가 만을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입을 열어 전하고, 그가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내일 할 거예요.
전부 성령님의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마음가짐 하나에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성공이 어떻게 저에게 흘러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만 마음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생각하면, 성령께서 때를 따라 장소를 따라 뜻을 따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때, 그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내가 계속 그 마음의 방향을 갖고 살아갈 때, 이 복음이 나에게 즐길 수 있는 것이고 누릴 수 있는 것으로서, 계속해서 확장되고 연장되고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공 즐기기를 위한 두 가지 습관을 통해서, 오늘도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공, 이제 나가서 성공을 향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성공을 계속해서 누리고 즐길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성공을 즐기는 사람들의 두 가지 습관을 통하여 오늘 주어진 성공을 확인하게 하시고, 확인된 성공으로 인해 생활하는 가운데, 계속 즐겁고 그 성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